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말성

## 시·도의원들 "사사건건 규제 지방의회 통제하나" 반발

**내달 시행 앞두고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 움직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원들이 '지방의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공표했다.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행동강령 내용이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대부분 직접 규정되거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다 일부는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행동강령 제안 이유에서부터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방의회를 마치 범죄집단인 양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도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위원회에서는 시민 대표인 지방의원들을 상임위 성격에 맞춰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있다. 복지관련 위원회에 대한 심의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의 경우 산업건

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형태다.

한 시의원은 "이 안대로 심의·의결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활동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익위가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위 등을 확대 해석해 전체 지방의원을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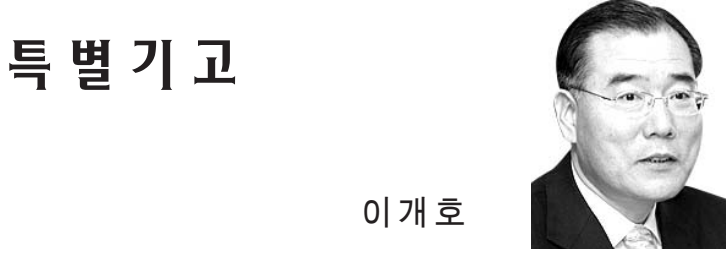
외부 세미나 공청회·토론회·심포지엄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면 신고를 의무화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세미나 참석시 모든 패널에 통상 지급되는 실비마저 의장에 게 신고토록 하고, 국내외 활동도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라며 "지방의회 운영 절차 등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법 일반 원칙상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상향하향의 위계조직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선출직 주민대표에게 강행규정으로 따르도록 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 정신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특히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둔 것은 지방의원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는 자체적으로 권익위 행동강령 폐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권익위가 정한 행동강령의 내용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행동강령 폐지를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년 벽두에도 가축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경북 전역의 돼지, 소 사육 농가를 초토화 시킨데 이어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인연발부터는 강원도 전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충남과 충북 등 충청지역 역시 고통을 앓고 있다.

특히 과거의 발생 사례와는 달리 돼지 사육농가 외에도 한우, 젓소에 이르기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사슴 등) 발병이 돌로 갈라지는 동물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그 범위가 거의 전국을 휩쓸고 있고, 발생기간 또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 우리 수준을 넘어 이미 심각한 단계를 거쳤고 지금은 가히 재앙의 수준이라고 할만하다.

말 그대로 소, 돼지 등 가축에게는 지역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격이 되었다. 이미 영암과 나주에서는 살처분과 매몰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해안 철새가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서해안 철새는 올해에만 날아든 것이 아니다. 구제역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방역 소홀과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접촉 또한 마찬가지로 있다. 축산인 등의 해외여행이 최근에만 잦았던 것이 아니고 해외 축산물 유입이 최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축산환경과 축산인들의 방역의식에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축사육장의 여건은 참으로 열악하다. 가축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밀집사육, 햇빛이 들지 않아 습하게까지 한 내부, 환기조

## "각 정당·민주세력 연석회의 열자"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 간담회 정례화

**김재군 민주광주시당위원장**

김재군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2일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민주 세력들이 함께 하는 '광주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연석회의는 반민주, 반평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설 효과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민주세력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광주가 2012년 정권탈환의 동인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제 정당과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연석회

의 방향과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연석회의가 야권연대와 2012년 총선 공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등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연석회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심균형발전을 위한 구간 경제조정과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광주공항 이전문제, R&D특구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정 간의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노벨상 후보자' 육성 6000만원 준다 교과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300명 선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 300명을 선발해 2년간 6천만원에 달하는 과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노벨상 후보자'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우수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을 신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이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300명을 선발해 2년간 월 250만원씩 총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등록금, 생활비, 단기 국외연수비(여학생은 제외)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연합뉴스

## 배아줄기세포로 혈소판 생산 성공 차병원 연구팀 세계 처음

생산함으로써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혈액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차병원 측은 평가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논문 '셀 리서치(Cell Research)' 온라인판에 이날 게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혈소판은 수명이 짧아 장기 보관이 어렵고 혈액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체혈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 우리 가축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

사육농가에게는 날벼락이 되고 있다. 전국 축산 소득이 16조원에 달하고 있어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우리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봐야도 과언이 아닐 실상이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예외없이 살처분과 매몰을 단행해야 한다. 가축을 죽여서 땅에 묻는 작업은 사람이 한다. 축산 관계공무원, 축협 임직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 덕분에 발생사례가 없지만, 사전 차단방역에 주력하더라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방역소만 하더라도 도간·시간간 경제지침은 물론이고 대규모 농장이 있는 마을 진입로까지 모두 17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급기야 군병력까지 동원해 주도역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 이어 우리 영암과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D)이 발생하고 말았다. 구제역 방지에 여념이 없는 사이 열친 데 달친

차 안되어 숨 막히는 상황 등등. 이러한 환경에서 가축들이 건강하게 커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독감의 일종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하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처하기 위해선 철저한 예방·차단방역과 이를 위한 축산인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한편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모색해야 한다. 평소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축사를 개선하고 가축이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체계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전환위부의 계기로 삼아 구태의연한 관행축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이나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특히 그동안 무한정 축산의 친환경축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 복지형 친환경축산추진 추진에 모든 정책의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 문 방 수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의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860-29